

치 사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다문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지났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좋은 시기에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이민자 가구 18만이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평등사상을 실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110만 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등의 정책 목표를 두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개발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공식기관이 설립되고,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후원과 더불어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오늘 이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해 더 따뜻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 입니다.

친애하는 다문화가족 여러분

우리 재단은 제1회 다문화가족대축제를 출발점으로 매년 좀더 많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결연후원금 지급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법인과 임직원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다문화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0월 09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